

# 改革的 自我의 形象化

—丹齋小說의 일고찰—

李 相 元\*

## 차 례

I. 서 론

II. 본 론

1. 脫植民 의식

2. 혁명 지향 의식

3. 개혁적 자아의 한계성

III. 결 론

## I. 서 론

단재는 한말 국운이 위급할 때에 영웅 사상에 입각한 역사적 영웅의 전기를 지어서 일제 침략에 대한 경각심과 구국 의식을 제고시켰고 망명 후 독립 투쟁에 참여하면서 「꿈하늘」, 「龍과 龍의 大激戰」 등 작품을 통하여 민족주의적 이상 세계를 환상적 수법으로 그려냈었다. 그리하여 그의 문학은 성경한 이념을 서사 구조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문예학적 면에서는 큰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단재는 망명 후 연대 미상의 많은 작품들을 창작했다. 「柳花傳」, 「一目大王의 鐵鎚」, 「朴象羲」, 「李适」, 「百才 老僧의 美人談」, 「一耳僧」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유화전」은 전기 문학과 연관될 수 있는 작품이지만 다소 이질적인 점이 있고, 「일부대왕의 철퇴」, 「박상희」, 「이팔」 등은 역사적 인물의 재해석 행위로서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인물을 다룬 일련의 작품에서 한걸음 나아가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

서 허구적 인물을 다룬 작품들—「백재 노승의 미인담」, 「일이승」을 고찰함으로써 단재가 국내활동기에 보여주었던 사회진화론적 자강 사상이나 영웅 사관을 극복해 나아가는, 단재 소설의 어떤 새로운 면모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품들을 고찰해 보면, 단재 소설이 가진, 민족주의적 이념의 발로로 인한 서사구조적 취약성이나 경직성이 크게 완화되어 독특한 미학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들 작품이, 현실 개혁을 지향하는 인물들의, 부조리한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 의식을 나타냈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sup>1)</sup> 여기서는 그의 대표작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두 작품의 승화된 작품 세계를 고찰함으로써, 구성에서도 뛰어나거니와 역사 의식이 차원 높게 형상화되어 있음을 살피고 아울러 개혁적 인물들의 추구에서 보이는 어떤 한계성도 밝혀보고자 한다.

## II. 본 론

### 1. 脫植民 意識

「백재 노승의 미인담」은 「예쁜 아내 때문에 중이 된 노승」의 이야기이다. 조선조 세조 때의 남이 장군이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서울 동대문 밖 호국사에 놀러 가서 아내 자랑으로 인하여 서로 말다툼까지 벌이는데 이때 「머리 깎기에 게을러 눈 빛 같은 머리털이 더털더털하게 두 귀를 덮은 늙은 중」인 悟空和尚이 곁에서 듣다가 「역사상에 빠진 송도 말년의 조선·몽고·중국 세 민족의 이목을 놀래우던 대사건」을 말하게 된다. 노승은 「송도 시절에 일등 부귀를 누리고 수하에 몇 천 명의 군대도 거느리어 본 장군」이었다. 작품 속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대체로 13세기 중엽에서 말엽까지로 고려

1) 참고, 「丹齋小說의 인물 고찰」, 國語國文學 20, 부산대 국문과, 1983, p. 56.

때의 몽고족 침입기 및 피지배기이다.<sup>2)</sup>

줄거리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노승이 17세 때 재상 황모의, 美貌의 딸과 결혼하였다.
- ② 몽고족이 침입하자 노승은 5천의 군사로 수만 명의 몽고병과 대항한다.
- ③ 이때 여종 예쁜이의 도움으로 싸움에서 이긴다.
- ④ 몽고 지배기에 들어서서 노승의 아내 황씨와 예쁜이는 공녀로 징발된다.
- ⑤ 노승은 분노와 원한으로 재산을 팔고 아내를 찾으러 북경으로 떠난다.
- ⑥ 옛 아내 황씨가 몽고 장수 차손다다의 부인이 되고 예쁜이는 그 婢子로 있음을 알게 된다.
- ⑦ 노승은 차손다다가 입직한 틈을 타서 잠입하지만 변심한 황씨의 편에 빠져 사흘이나 협실에 감금당한다.
- ⑧ 예쁜이가 위험을 무릅쓰고 문을 열어 구출한다.
- ⑨ 노승이 잡자는 차손다다와 황씨를 살해하고, 예쁜이와 같이 살 생각을 하고 함께 도망가고자 하나 예쁜이는 자결하고 만다.
- ⑩ 밤중에 여관으로 돌아온 노승이 새벽에 북경성 남문을 빠져 나온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자체가 매우 극적인데, 노승을 화자로 하는 액자 형식을 취하여 그 사실성을 강조하는 수법을 써서 허구화시켰다.

이제 이 작품의 중심이 되는 세 인물의 성격을 살펴보자.

먼저 「노승」이라는 당대의 인물이다. 그는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귀족 출신이므로, 아내를 빼앗기기 전 그의 태도는 다분히 보수적이다. 몽고 사신이 남의 딸이나 아내를 빼앗아갈 때 격렬한 감정에 못이겨 통분을 터뜨리는 당사자를 보고는, 아무리 분하여도 월왕 구천과 같이 수십 년 양병하여 기회를 기다려 생사를 걸고 싸울 것이지 당장 칼을 빼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이 아내를 빼앗겼을 때에는 달라진다.

……고려 사람도 사람이냐? 북방 오락케 늬에게 온갖 욕을 다 보면서 살아 있는 고려 늬도 사람이냐?…… 내 입금을 잡아 마래기 쓴 황제에게 절하게 하거나,

2) 이선근, 대한국사3·민족의 대항전, 신태양사, 1973, p.132이하 참조.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제목의 「百濟老僧」은 부자연스럽다 (「단체신채호전집」 개정판에 「百濟老僧의 美人談」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1982년에 출판된 개정3판에는 「百才老僧의 美人談」으로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따랐다.

말내에 제집까지 빼앗기는 말 못할 치욕을 당하거나 다 불고하고 오직 굴속에서 구차한 생명을 보전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세상으로 살아 있는 고려 늑도 사람이냐?…… 칼을 빼어 들고 「모두 나아가 싸우자. 싸우다가 이기면 다행이요, 죽어도 영광이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나아가 싸우자」고 외치고 싶지만, 그러나 이때야 쓸 데 있는 말입니까.<sup>3)</sup>

노승이 자못 강개하여 민족적 투쟁 의식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내를 빼앗긴」 한 남자의 고뇌에 찬 감정의 표출 이상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 때야 쓸 데 없는」 관념적 저항에 그칠 뿐이다. 노승이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도도 무력하게 울분을 감수 당해야 하는 굴욕을 박차고, 가산을 정리하여 북경에 가서 「사건」을 연출한 것은 그 자체로서 대단한 용기를 요하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노승의 행위는 「아내 사랑」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그 동기가 근본적으로 아내를 빼앗긴 원한에 있기 때문이다. 노승의 울분은 아내와 차손다다를 죽임으로써 일단 해소되고, 동시에 노승은 예쁜이의 인물됨을 비로소 절실히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는 몽고의 지배 때문에 빚어지는 고통에 대하여 민족적 차원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제집을 빼앗아간 놈을 질러 죽이려는」 애초의 계획을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노승은 당대적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민족에 대한 그것보다 자신에게 더 소중하다는 의미가 된다. 아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물거품으로 화하고 예쁜이도 죽고 모든 것이 무상해진 노승이 결국 현실적인 삶을 포기, 출가할 수밖에 없었음은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는 근본적으로 情意的·반항적 인물로서, 현실 개혁이나 혁명 의지를 가진 개혁적 인물은 될 수 없다. 단순한 반항적 자아는 될 수 있겠지만 「개혁적 자아」는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노승의 옛 아내로 차손다다의 부인이 된 황씨라는 인물이다. 그녀는 일찌기 고려를 떠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죽거든 내 주검이나 찾

3) 앞의 작품, 단재신체호전집 하, pp. 283~84. (이하 단재신체호전집 작권은 「상」, 「중」, 「하」, 「별」로 표시함).

아다가 고국 강산에 묻어 주오」라며 노승과 한맺힌 생이별을 했다. 그러나 노승이 하인을 매수하여 차손다다 장군 부인의 침소 앞까지 잠입하여 「아내」를 만났을 때 황씨는 한참 동안 알아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반가운 기색도 없다. 황씨의 입장에서 보면,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면서도 자신이 살 길이란 이민족의 상황에 적응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 뿐일 것이다. 그러나 이역만리를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사랑하던 옛 남편을 한참 동안이나 알아보지도 못하고 반가와하는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협실에 가두어 죽이게 하려는 행동은 아무래도 「지나친 적응」이다.

황씨는 「현실적」인 안전과 행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의 정의에 조금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황씨의 자아는 철저히 현실에 영합하는 비주체적 자아가 될 수밖에 없다. 단재적 용어를 빌린다면 그녀는 「노예적」 인물의 전형인 것이다. 그래서 단재는 노승으로 하여금 「잡자는 미인」에게 끝내 말 한 마디 물어보지 않고 목을 치게 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 소설에서 가장 긍정적인 인물로서의 주인공은 하녀인 「의협 여장부」 에뿐이다.

에뿐이는 노승이 몽고병과 대전할 때,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숨은 공을 세웠고, 공녀로 징발된 때에는 조금도 슬퍼하거나 분하게 여기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 북경 길거리에서 노승을 만났을 때, 에뿐이는 「아씨」(황씨)가 이미 변심했음을 암시하고 돌아갈 것을 권유하나 죽더라도 황씨를 만나보아야겠다는 노승의 말에, 얼굴이 새파래지며 일장 數罪를 한다.

영감 들으시오. 사나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사나이라 하옵나이까. 적국이 내 나라에 침입하면 칼 들고 활 메고 전장에 나가서 적병을 물리치고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 오거든, 그의 아내는 낮에 불빛을 머우고 나가 맞게 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전장에서 싸우다 죽어 버리어 울긋불긋한 피두르마기 입은 송장으로 돌아 오거든, 그의 아내가 눈물을 뿌리며 나아가 맞게 하는 것이 사나이의 일이 아닙니까. 적국의 정복을 받아 죽도 살도 못한 몸이야 제 계집이나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깊이깊이 도강[골방] 속에 가두어 놓고, 그 속에서 부처의 행복을 누리려 하였으니, 네가 무슨 사나이냐?……

계집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네 계집 이외에 계집보다 중대한 것을 얼마나 빼앗기었느냐, 나라 안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도 찾을 줄 모르면서 어찌 계집을 찾

울 줄은 아느냐, 네가 무슨 사나이냐! ……<sup>4)</sup>

이것은 무용무력한 고려 사나이에 대한 준엄한 비판인데 처음에는 옛 상전이라는 점을 생각하여 경어를 쓰지만, 신분 관계를 무시할 만큼 격렬한 강변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서 천인답지 않은, 예쁜이의 철저한 주체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예쁜이의 자아를 규명하기 위해서 작품에 소개된 그녀의 내력과 재락을 살펴보자.

고려의 平章事로 있었던 노승의 아버지가, 죽은 어미에 매달려 울고 있는 어린 것을 길거리에서 주워 기른 것이 곧 예쁘이다. 어릴 때 노승과 같이 글을 읽었는데 그 재지가 매우 뛰어났다.

예쁘이는 노승과 함께 「국조고사」를 읽다가 尹瓘을 영웅이 아니라 하면서 그 이유로 우리 나라를 침범하는 도적인 契丹을 치지 않고 우리 나라에 복종하는 종인 女眞을 정벌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노승의 아버지는 힘드는 일을 항상 예쁘이에게 물어 행하니 나라의 아무리 큰 일이라도 잘못된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노승의 아버지가 예쁘이에게 몽고 침입에 대한 대비책을 물었다. 이에 예쁘이는 강화 천도 후 싸워야 한다고 전제하고 「우리 고려는 양반이 있고 노예, 상놈, 雜色이 있어 백만 명에 구십구만 명은 고려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늘에 전국에 노예 문서를 없이 하여 노예라도 功만 이루거든 높은 벼슬을 줄 것이 제일 급무입니다.

世家大族들이……先代の 받은 사패 땅을 가지고 그것도 부족하여 남의 땅을 빼앗아 앉아 놀며,……이 따위 費人의 토지를 빼앗아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이것이 제일 급무입니다.

……오늘에 沿海 각지에 군함을 지어 水軍을 設하고……수군 부흥이 제삼 급무입니다.

북방에 여진이……이제 나라가 망하여 몽고에게 복속하였으나,……군사로 여진을 원조하여 金 나라의 이름을 회복하게 하면 여진이 또한 순종할 것이니 북방의 경영이 제사 급무입니다.<sup>5)</sup>

4) 하, pp. 286~87.

5) 하, pp. 296~97.

라는 4대 急務를 제시한다. 이러한 급무를 수행하고 부방에 산성을 많이 쌓아 兵馬를 막는다는 몽고에 대한 방어책인 것이다. 이처럼 예쁜이는 천민 신분이면서도 뛰어난 才略과 자주 정신을 가졌으며 현실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정에는 그러한 정책을 실행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노승 아버지의 말에, 예쁜이는 「나에게 국정을 맡겨 달라」고까지 극언함으로서 「女蓋蘇文」이라는 별명을 듣는다. 여기에는 평장사와 여종 사이의 지위와 재력의 대비를 통하여 고려 당대 조정의 무능과 비자주성을 비판하는 풍자성도 엿보인다. 예쁜이에게는 고려 조정의 대신들이 몽고에 대한 방어책은 강구하지 않고 다만 그 침략을 앉아서 기다리는 무기력한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단재는 역사 연구나 사론, 전기 문학 작품 등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고려와 조선 시대의 비자주적·사대주의적 「노예 사상」을 비판했는데, 여기서도 그의 비판적 역사 인식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예쁜이는 주체적·저항적 인물일 뿐 아니라 범인이 따를 수 없는 지략을 갖춘 비범한 인물로서 역사적 현실의 개혁을 지향하는 개혁적 인물이다. 몽고 방어책 등은 예쁜이의 개혁적 자아를 말해 주고 있다.

주체적·저항적·개혁적 표상으로서의 예쁜이의 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예쁜이의 죽음에 대한 해명은 작품의 주제 해명과도 크게 연관될 수 있다.

일찌기 예쁜이는 고려에서 몽고군 격퇴에 공을 세웠으나 인정받지 못했고, 몽고 방어책과 같은 탁견을 제시했으나 고려적 상황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했다. 마침내는 고려가 몽고에게 짓밟히게 되어 몽고 방어책 같은 것은 한낱 공염불이 되고 만다. 그리하여 「아씨」와 함께 공녀로 끌려갔어야 했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아씨」를 전 남편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하도록 만드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사건은 「고려인」이 당해야 하는 비극이었다.

예쁜이는 자신의 운명과 고려의 상황 그리고 주변의 비극적 사건을, 한두

개인만의 비극이 아니라 민족적 고통과 비애로 인식한다. 그만큼 예쁜이는 자주적인 자아 의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는 언제나 몽고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실로 암담한 현실이었고, 무사히 탈출하여 고국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두운 식민지적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예쁜이는 자신의 포부를 펼 수 있는 곳이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다. 노승과 함께 탈출, 일생을 같이 산다는 것도 자아 실현이 불가능한 식민지적 현실의 탈피가 전제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혁적 자아를 가진 인물이 그것을 갖지 않은 어떤 개인을 향한 충직이나 사랑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적어도 단재적인 <我>와 <非我>의 투쟁적 관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결국 예쁜이는 노승의 안전한 탈출을 구실삼아 자결하고 만다. 자결의 근본 원인은 자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철저한 현실 인식에 있다. 자아의 실현을 포기한 「노예적」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강렬한 자아 의식이 구차한 생을 거부한 것이다.

예쁜이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개혁적 자아의 현실적 패배요 좌절을 뜻한다. 이것은 예쁜이의 자아가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제약, 개인적 운명과 같은 「비아」를 뛰어 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 좌절이 자아의 절대적 패배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아의 굴종을 거부하고 끝까지 <비아>와 대결한 결과 선택된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개혁적 자아가 보여준 일종의 저항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항성적 인물<sup>6)</sup>로서의 예쁜이의 자아 의식으로 하여금 현실과 타협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죽음으로서 「비아」에 대항하게 함으로써, 개혁적인 동시에 저항적인 자아상을 구현한 것이다.

몽고족에 의한 피지배기에 고려가 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고통과 공녀에 얽힌 불행울 소재로 한 이 작품에서, 단재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괴로움을 당하던 당대의 삶을 투영시킨다. 노승과 아내 황씨와 여종 예쁜이는 그러한 역사적 비극의 현장에서 희생된 피해자들이지만, 예쁜이를

6) 자아의식이 투철한 인물이 恒性的 인물이고, 자아의식이 「비아」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인물이 變性的 인물이다. 참고, 앞논문, pp.53~54 참조.

통해 단재는 바로 현실적 독립 투쟁 의식을 역설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백재 노승의 미인담」은 과거의 역사적인 민족적 비극을 극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일제하 당시대의 역사적 현실과 탈식민지화의 의지를 재인식하게 해주는 소설이다.

## 2. 혁명 지향 의식

「일이승」은 서얼 출신 鄭乙珍과 홍경태난의 배우 인물인 일이승 및 홍경태의 반사회적 혁명 지향 의식을 다룬 소설이다.

「일이승」은 적서 차별로 인한 정율진의 念怨 가솔, 홍경태난 가담 및 그로 인한 철산 정씨의 逢禍 과정이 주된 골격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정율진이 홍경태난에 가담하기까지 일이승이 등장하여 홍경태의 배후에서 거사 준비를 진행시키는 과정과, 그후 홍경태의 거사 및 실패 과정이 첨가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줄거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율진은 적서 차별에 원한을 품고 가솔, 안변 석왕사의 불목장이가 되었는데, 적서의 명분을 타파할 수 있는 입금이 되기를 하느님께 빌었다. 이를 안 주지승은 왼쪽 귀가 없는, 자칭 일이승을 소개한다. 일이승은 정율진을 데리고 10년 동안 각지로 다니며 홍경태의 거사를 위해 인물들을 모집하지만 율진에게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만을 가끔 들려줄 뿐이다. 일이승은 왕이 되겠다는 정율진을 설득, 거사에 가담시키고 산속으로 숨어 버린다. 거사 후 右營大將이 된 정율진은 불만을 말하다 홍경태에게 죽고 난도 평정된다. 홍경태 족당의 처단이 시작되어 철산 정씨인 정율진 일족도 화를 당하게 되지만, 조상 정봉수의 흥절 덕분에 멀쩡은 면한다.<sup>7)</sup>

이제 작품 속의 세 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정율진

부친상을 당하여 堂下에서 곡하라는 차별에 반발, 「무엄한 서자」로 지탄

7) 정씨는 철산의 거족으로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때에 충신들이 있었으며, 홍경태난에 가담한 철산의 力士, 유력가로서 정씨들이 다수 있으나 정율진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정석중, 「『홍경태난』의 성격」, 한국사 연구7, 한국사연구회, 1972. 참조)

받은 정을진은, 「오나. 철산 정가 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내 앞에 잡아다가 쫓리여 불 날이 있겠지. 그렇지 못하면 내 한 몸의 고기 값으로 너희들의 全門을 다 멸망시킬 수 있지……」 하는 가문에 대한 원한을 품는 동시에 적서의 명분 타파를 위해 왕이 되겠다는 야망에 사로잡힌다.

그리하여 정을진은 자신을 왕건이나 이성계에 견주고 일이승을 道誑이나 無學인 줄 생각하고 일이승을 따라다닌다. 일이승이 흥경래를 만나 서로 「대왕」과 「스승님」으로 수작하는 것을 들은 정을진의 심리적 갈등은 왕에 대한 그의 집착을 잘 말해 준다.

「대왕」이란 소리가 정을진의 귀에 마치 청천백일 벼락 소리같이 들리었다. 정이 평시에 일찌기 천하에 대왕 둘이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하나는 서울에 있는 이씨는 곧 현재의 대왕이요, 하나는 정을진 자기는 곧 미래의 대왕이었었다. 그런데 이제 일이승이 부르는 대왕은 웬 대왕이냐? ……이제 일이승이 그 누구를 대왕으로 부르니? 곧 자가의 十年謀臣이 자기를 배반하고 타국에 투항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 깨라따라 하던 잠귀가 번쩍 뜨이며 외락 일어나……<sup>8)</sup>

그러나 일이승의 꾸지람을 듣고 왕이 되려는 「어리석은」 생각은 일단 접어 두고 흥경래에게 가담한다. 정을진은 우영대장으로서 의주 백마성을 치게 되는데, 백마산 전면의 雲山草木을 군사들이 진치고 있는 것으로 오인, 미리 겁을 집어먹고 회군해 버린다.

흥경래의 거사가 처음에는 청천강 이북에서 세력을 떨쳤으나, 나중에는 관군에 밀려 定州守城期에 들어간다.<sup>9)</sup>

흥경래는 성 안에서 나라를 만들고 왕노릇을 하는데 그것을 본 정을진이,

정을진이 만일 일찌기 성 밖을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성 안에선 왕명을 행하는 흥대왕의 우영대장이 될 줄 알았다라면 차라리 나홀로 어느 산 중 소옥에서 문 닫고 정 대왕이라 자칭하다가 말년에 병들어 죽을 때에 「짐이 崩하신다. 태자야 즉위하라」 부르짖고 죽었음이 좋았을 것을……<sup>10)</sup>

8) 별, pp. 312~13.

9)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 15. 민중의 항거, 1975, p. 98 이하 「흥경래난의 성격」 참조.

흥경래난을 준비기, 청북판동기, 정주수성기로 나누고 있다.

10) 별, p. 318.

하고 말하다가 홍경래에게 죽음을 당한다. 정을진이 끝까지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는 자신의 원한보다는 왕이 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채 파멸하고, 가문에 대한 약간의 앙갚음으로 마무리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그의 자아는 「개혁적」 자아라기보다 시대 착오적이거나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범인의 그것에 불과하다. 아니면 사이비 개혁적 자아를 표상한다고 보아야 옳다. 그것은 정을진이 혁명적 역량도 없이 과분한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며 또한 그 출발 자체가 가문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앞에서 논한 「노승」과 같은 계열의 인물이라 할 수밖에 없다.

## ② 일이승

일이승은 완전 허구적 인물이다.

그는 정을진을 메리고 거사에 가담할 만한 사람들을 포섭하려 다니면서, 고대 제왕장상의 성패득실이나 本國史에 대한 이야기를 정을진에게 들려 주었는데 특히 궁예와 최영의 실패를 애답게 여긴다.

〈삼국사기〉를 보면 궁예가 新佛經을 짓고 명승 釋聽을 죽이었으나 아마 궁예가 신라 말엽의 부패한 불교를 개혁하고 자기가 신불교를 건설하려다가 당시에 인심이 불복하므로 왕건이 그 짝을 보고 드디어 구불교에 것은 諸將을 유인하여 궁예를 쫓았으니, ……간웅의 무리들은 매양 일시의 便을 위하여 인심의 약점을 이용하므로 성공하기 쉽고, 당당한 대인들은 매양 만세의 利를 위하여 인심의 반대되는 일을 하려 하는 고로 실패하기 쉬우니 궁예와 왕건의 성공과 실패의 다름이 이에 말미암음이니라.<sup>11)</sup>

일이승은 이처럼 왕건을 간웅으로, 궁예를 당당한 대인으로 즉 「신라 후기에 죽어가는 조선의 인심을 진작시키려던 질물」로 평가한다. 漢의 유생이 분서경유의 한을 풀기 위해 진시황을 여불위의 아들이라 욕하듯이, 궁예의 사적은 궁예를 배반한 왕건의 죄를 가리기 위해 조작되었다는 작자의 인물 해석과도 이것은 상통한다.<sup>12)</sup>

11) 별, p. 307. 이러한 내용의, 역사에 대한 단재의 해석은 「일북대왕의 철퇴」(하), 「실패자의 신성」(하)에도 나타나고 있다.

12) 조선상고사, 상, pp. 66~67 참조.

단재는 역사를 재해석하면서 尊華主義와 사대주의의 「노예성」을 타파하려는 자주적 개혁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러한 단재의 역사관과 일이승의 발언 내용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시대의 인물 최영에 대해서도 일이승은,

고려가 몽고에게 근 백년의 압제를 받아 조선 전국의 인심이 아주 유약된 때니 이 때에 최영이 요동을 차지하려는 계획이 성공되어야 조선의 원기가 회복될지어늘, 불행히 이씨 태조가 최영을 반대하여 불의에 위화도에서 퇴군하여 중국을 침범한 죄로 최영을 죽이매, 이 뒤부터 드디어 조선 사람이 다시 중국과 대항할 마음이 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조선 사천년에 처음 있는 대변이요, 또 이조 사백 년내의 미약한 장본이니, 최영의 실패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조선 사람이 아니니라.<sup>13)</sup>

하면서 개세의 호절인 최영의 실패가 사대주의적 문약의 장본이라 주장한다. 최영의 舊疆恢復을 위한 복벌과 자주 의식에 대한 높은 평가는, 부여·고구려·발해의 광활했던 옛 무대를 회복하여 자주 독립의 강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단재의 역사 의식과도 상통한다. 단재의 「독사신론」이나 「최도통전」·「꿈하늘」 등 거의 모든 저작에서 볼 수 있는 古代의 응혼한 역사 무대의 인식과 「구강」에 대한 동경은 단재적 자주 독립국의 이상적인 모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궁예와 최영에 대한 일이승의 이러한 발언은 춘추 필법<sup>14)</sup>에 의한 명분론적 역사 기술에 대한 단재의 신랄한 비판과도 일치한다. 일이승은 바로 단재 자신의 투영적 인물인 것이다.

작품 속에서 흥경태난의 준비는 일이승의 지모와 책략에 따라 진행된다. 거사 준비가 완료되자 일이승은 자신이 할 일은 다했다고 생각하여, 「전쟁에 오를 용사도 못되며 陣中에 직접 참여할 모사도 못된다」 하고 산속으로 숨지만, 「몸은 가지만 마음은 가지 않는다」라 하면서 그의 혁명 지향 의지를 끝내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이승은 진정한 개혁적 자아를 가진 인

13) 별, p. 308.

14) 春秋筆法이란 공자의 「춘추」와 주희의 「강목」의 필법으로, 역사를 천명론, 의리론, 정몽론 등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물이며 작품 속에서의 실제적 거사 주도자가 된다. 비록 일이승의 개혁적 자아가 작품을 통하여 실질적인 성공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단재는 혁명지향성과 개혁 의지를 충분히 형상화시켰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단재가 일이승으로 하여금 거사의 표면에서 직접 활약하도록 만들지 않고 그 배후 인물로만 설정한 것은 일이승이, 실패로 돌아간 홍경태난을 배경으로 한 허구적 인물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일이승의 「잠적」으로서 단재의 작가 의식을 상대적으로 낮추어 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일이승의 의미심장한 인물은 작품의 의미를 더욱 함축성 있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

### ③ 홍경태

홍경태는 역사적 인물이다.

그는 평안도 용강 출신으로 정조 말기 司馬試에 낙방한 뒤로 현실에 불만을 품고, 1800년에 서얼 우군치를 만나 반란을 결의하고 준비해 왔다<sup>15)</sup>고도 하고, 본래 용강의 地師(풍수)로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사 준비를 위해 각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명사나 부호들을 만나 봉기 의식을 타진했다<sup>16)</sup>고도 한다. 이렇게 하여 치밀한 준비를 거친 홍경태는 마침내 1811년 12월 평북 가산에서 거사하여 한 때는 청천강 이북을 휩쓰는 등 세력을 떨치지만, 정주성에서 관군에게 패사함으로서 만 4개월간의 난이 종식된다.

단재적 관점에서 본다면, 거사의 성패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난을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도 홍경태는 실천적 개혁 의지 내지 혁명성을 가진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작품에서의 홍경태는 배경적인 부차적 인물로 다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작품의 촛점이, 정술진의 과대망상적 자아를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일이승의 개혁적 자아를 구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홍경태는 정술진이나 일이승의 행동에 인과성을 부여해 주는 이상의 구실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일이승」은, 일이승과 같은 혁명 의식을 지향하는 개혁적

15) 이선근, 대한국사5. 민족의 수난, 1973, p.421.

16)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15, p.98.

자아를 형상화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칫 단순해지기 쉬운 소재를 가지고도 대비적인 인물 정윤진과 일이승을 설정함으로써 형상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뛰어난 작품이라 아니할 수 없다.

### 3. 개혁적 자아의 한계성

이처럼 「일이승」은 혁명 지향 의식을 형상화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단재의 의식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성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다. 우리는 홍경래난의 원인과 그 의의를 생각해 봄으로써 단재의 개혁 추구 방식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엿볼 수 있다.

단재는 「조선상고사」의 〈총론〉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언급하기를,

……기원과 양길도 일시에 雄張한 나말의 未定한 국면에서 일어남이요, 이징육이나 홍경래가 居然히 패망함이 이조의 既定한 국면으로서이라.<sup>17)</sup>

라고 하여 홍경래난이 결국 유아무야로 된 것이 「이미 정해진」 안정된 사회 때문으로 보았다. 그런데 홍경래난이 홍경래 일개인의 의지에만 의존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홍경래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 서북인에 대한 차별 대우 등 부패한 과거 제도를 포함한 모든 어지러운 정치에 있다. 그것은 조정이나 지배 계층에 대한 불만과 지방관의 탐학에 대한 울분의 폭발이었던 것이다. 홍경래난은 불우한 지식층이 모의의 중심이 되었지만 그 기반은 초기의 광산 노동자층에서 출발하여 대중소 상인층과 농민층이 합세함으로써 이루어졌다.<sup>18)</sup> 세도 정치의 극성과 문란한 정치, 흑심한 흥황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순조 때에는 계속적인 민중 봉기가 일어났으니,<sup>19)</sup> 그것은 바로 절망한 민중이 스스로 들어 올린 항쟁의 기치였다. 그러므로 홍경래난

17) 조선상고사, 상, p. 72.

18) 정석중, 앞의 논문, pp. 203~04.

19) 이선근, 대한국사5. 민족의 수난, 신태양사, 1973, p. 419이하 참조.

은 일개인의 반란으로만 볼 수 없으며 민중 의지의 집약적 표현으로 확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단재는 「일이승」에서 민중과 백성의 항거로서 흥경태난을 다루지 않고 그와 관련된 개혁적, 혁명적 개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쁜이와 일이승은 개혁적 자아를 가진 뛰어난 개인으로서 추구되었지만 「既定한 국면」 바꾸어 말하면 「비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은신함으로써 자신의 포부를 실현시키지 못했다. 이 점은 민중이나 백성과 같은 평범한 인물들을 고려하지 않은 「개혁적·혁명적 개인」만에 의한 개혁의 추구였다는 점에서 필연적인 귀결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들의 한계성 때문에 실제 작품에서도 인물의 파멸·은신의 결과 어떤 「개혁」이 달성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작자의 역사관과 부조리한 현실 세계의 비판, 탈식민지 의식을 형상화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부단한 개혁 의지를 보여준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전기 문학 작품에서와 같은 이념의 생경한 노출이 지양되고 훌륭하게 작품화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들 작품은 단재의 대표작 속에 들어가야 마땅할 것으로 본다.

위에서 논의한 결과로 보아 단재는 역사 연구를 통해서 민중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의 개혁적 자아는, 개인 단위로서는 현실 개혁과 탈식민지가 결국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여 발견하게 되는 「조선혁명선언」 이후의, 민중의 혁명적 자아에 의해 비로소 극복되어지는 것이다.

단재 문학에 있어서 개혁적 자아는 구국 의식의 표백으로서의 구국적 자아<sup>20)</sup>를 이어받고 있는데, 이는 그의 구국적 자아가 망국 이후 역사 의식과 결합으로써 현실 개혁 지향의 투철한 개혁적 자아로 변모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개혁적 자아의 모색과 형상화는 근본적으로 「뛰어난 개인」의 추구라는 점에서, 그의 영웅 사상에서 볼 수 있었던 역사적 민족 영웅에 맥이 닿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 전기 문학에서의 영웅들이 가진 자아를 필자가 지칭한 말이다.

### Ⅲ. 결 론

필자는 망명 후에 씌어진 단재의 소설 중에서 「백재 노승의 미인담」과 「일이승」을 대상으로 하여 인물의 자아와 의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백재 노승의 미인담」에서는 예쁜이의 개혁적 자아를 형상화하여 「비아」에 대한 저항적 자아상을 구현했다. 단재는 몽고에 의한 피지배기의 불행한 사전을 소재로 하여,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적 삶을 투영시킴으로써 현실적 독립 투쟁 의식을 역설적으로 구현했고 탈식민지화의 의지를 재인식시켜 주고 있다.

둘째, 「일이승」에서는 허구적 인물인 일이승을 흥경래 거사의 배후 주도자로 등장시켜 그의 진정한 개혁적 자아를 보여주었다. 단재는 일이승의 입을 통하여 그의 역사관을 작품 속에 용해시켰고, 과대망상적 자아를 가진 정을진을 대비적으로 사전 표면에 내어놓음으로써 혁명 지향적인 일이승의 참모습을 구현했다.

셋째,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현실이나 과거 역사에서의 반자주·사대성을 비판하는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념의 생경한 노출이 지양되고 있다.

네째, 예쁜이와 일이승과 같은 개혁적 자아를 가진 뛰어난 인물이 마침내 자살하거나 은신해버림으로서, 「비아」를 극복하는 실제적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들 작품에 나타난 단재적 개혁 추구의 한계성으로 지적될 수 있다.